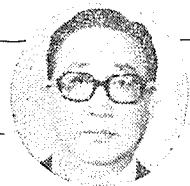




장내(腸內) 기생충 연구사업의 필요성



● 조 기 목

우리나라에 분포되어 있는 인체 기생충은 현재까지 알려진 것만도 40여종에 달하며 그 과반수 이상이 장내기생충에 속한다. 한가지 종류의 기생충에 있어서도 그 연구하는 방향은 여러가지 길로 나뉘어진다. 즉 대략 크게 나누어 보면 그 기생충의 감염율, 감염방식 등을 파악하기 위한 역학적 연구를 비롯하여 분류학, 생태학, 생물학, 생활사 및 중간숙주, 형태학, 병리학, 임상학, 진단학, 면역학, 치료예방 및

관리 등을 들 수 있다. 또한 각 연구방향에 있어서도 그 연구목적에 따라 다시 여러 갈래로 세분되게 되며 연구에는 또 다른 연구가 꼬리를 물게 된다. 그러나 이와같이 다양한 모든 연구의 중극적인 목표는 그 기생충의 예방과 관리 및 치료임은 두 말할 나위가 없다.

여기서 필자가 연구하여 오는 한 가지 예를 들어 설명하여 보기로 한다. 6·25 전쟁 당시의 일이다. 북괴의 불법납침은 드디어 필자도 온

식구를 이끌고 제주도까지 피난길에 오르게 하였다. 그 당시의 제주도는 4.3사건 직후로서 생활상태가 몹시 불안한 때였다. 필자가 유숙하고 있던 모병원에도 매일같이 환자가 쇠도하고 있었다. 그 중 특히 주의를 환기시킨 것은 제주도에는 간장염과 간농양 환자가 많다는 사실이었다. 그 후부터 언제나 이 병에 대한 문제가 뇌리에서 사라지지 않던 중, 지금부터 약 12년전에 우연히도 학생 하기진료반과 같이 다시 제주도에 가게 되었다. 간장염과 간농양 환자는 여전히 많았으며 시골에서는 더욱 심하였다. 그 당시 제주도에는 무의촌이 많았는데 그곳에는 예외없이 무면허의사, 무면허약사들이 있었다. 그들은 놀랍게도 간장천자를 하여 간장에서 농양(고름)을 빼내는 수술을 다반사로 하고 있었다. 즉 간농양에 걸린 환자는 그들에게서 고름을 빼는 수술을 받고 경쾌하여지면 노동을 하다가 또다시 재발되면 수술을 받고 하는 악순환이 계속되다가 종말에는 사망하게 되며 그 결과는 육체적, 정신적 손실과 인명피해는 물론 막대한 경제적 빈곤까지 이끌게 되어 오던 것이다. 당시에 한 촌락의 대변검사 결과 「이질아메바」의 감염율이 24.3%임이 밝혀졌다. 「이질아메바」는 대장에 기생하며 육안

으로서는 보이지 않는 원충류에 속하나, 이는 장벽에 침입하여 급성 또는 만성이질을 일으키기도 하며 때로는 혈류를 통하여 간장, 폐장 등 각종 장기로 퍼져서 염증과 농양을 일으키는 수가 있다. 그 후부터 필자 등 연구팀의 본격적인 제주도 행각이 시작되었다. 즉 주민의 37.1%가 간장염이었으며 그 중 59.7%로 부터 「이질아메바」의 「썸스트」가 검출되었다.

한편 이곳에서 분리한 「이질아메바」를 연구실로 운반하여 인공배양 연구가 착수되었으며, 이를 사용한 동물실험은 물론 간농양 환자의 농양과 혈청을 채취하여 현지로부터 항공편으로 운송하여 각종 연구가 개시되었다. 「이질아메바」의 전파양상과 간농양을 일으키는 요인에 관한 연구도 계속되었으며 치료약의 개발에 관한 연구도 세계각국의 제약회사와 제휴하여 진행되었다. 또한 그 병의 원인이 본 기생충임은 환자로부터 본 기생충을 검출해 내야 확실히 진단됨이 상식이나, 「아메바성질환」에 있어서는 본 기생충이 검출되지 않는 경우가 많으므로 면역진단법으로 진단하는 방향에 대한 연구도 시도되었다. 모든 연구 결과는 속속 보고되고 있다. 지금 제주도에는 간장염과 간농양 환자는 찾아보기조차 힘든 정

도이며 「이질아메바」의 감염을 역시 저하되어 벽지촌락을 제외하고는 5% 내외가 기록되고 있다. 이 결과는 본 연구팀의 노고는 물론, 현지주민 여러분의 열성적인 협력의 결과로서 자부하는 바이다. 그러나 아직도 연구는 계속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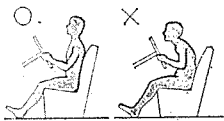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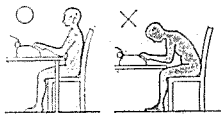
이상 사실로서도 현명하신 독자 여러분께서는 왜 기생충연구사업이 필요한지 이해가 가실줄로 믿는다. 그러나 최근 필자 등은 지방출장 때마다 쓸쓸하게 느낄 때가 많다. 즉 장내기생충을 연구함에는 대변의 수집이 순조롭게 이루어져야만 하는데 체변봉투를 분배한 후 수집하고 보면 그 절반도 수집 안되는 경우는 고사하고 때로는 동물(개, 돼지, 소, 닭 등)의 대변이 체변봉투 속에 들어있는 때도 있으며 한 사람의 대변이 여러 사람의 봉투 속에

나뉘어 들어있는 때도 있고, 또는 다른 사람의 대변을 제출하여 발각되는 경우도 허다하다. 서양적인 「혼자서 열 사람의 일을 하지 말고 열 사람이 함께 일하도록하라」는 말이 있다.

최근 우리나라의 각종 경제 산업 분야는 괄목할만한 발전을 이루었다고는 하나 기생충 감염에 있어서는 아직도 구태를 벗어나지 못하고 저개발국가의 수준에 머무르고 있음은 부끄럽고 통탄할 일이다. 이를 극복하고 기생충없는 건강하고 명량한 나라를 건설하기 위하여는 독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력없이 는 절대로 이루어지지 못한다는 사실을 강조하며 이 글을 맺는 바이다.

〈필자=연세대 열대의학연구소
기생충부장·의박〉

토막상식●



허리의 異常

사람의 몸은 척추 골반을 거쳐 하반신위에 얹혀있는 상당히 불안정한 상태를 취하고 있다.

이처럼 허리는 사람의 신체구성중에서 상당히 무리가 가는 부분이며 또 앞면에는 내장과 생식기등을 안고있고 몸 움직임의 중심이 되는 만큼 이상이 생기기 쉬운 부위라고 말할 수 있다.